서양역사의이해 2차시 40분부터

**금권정치**

솔론이라는 사람이 채무 노예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민회에 솔론이 채무를 없애자고 건의했고 수용되어 이루어짐. (그리스 8대 현인)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4계급으로 나눠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생김. >> 금권정치

따라서 부유한 시민층과 귀족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됨.

하지만 기득권층이 반발있었음.

>> 평민 귀족 모두의 반발 >> 혼란 더욱 가중.

**참주정치**

다수의 평민들과 결탁해 귀족을 타도.

상공업 장려, 빈민구제 했지만 권력남용으로 사라짐.

**민주정치**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오백인회가 주도했다.

잠재 독재인물 추방하는 도편추방법이 있었다.

**아테네 민주정치**

18세 이상 남자만 참정

민회가 입법 진행 >> 오백인회의 권한 축소

재판은 추첨으로 선출된 배심원이 다수결로 결정.

공직은 유권자 중에서 선출. 1년 임기.

장군 10년의 권한 확대됨.

그리스(아테네)는 해군 위주, 스파르타가 육군 위주였음.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반도의 라코니아에 도리아인이 건설한 폴리스.

인구 증가로 문제가 생겨 주변 그리스인을 정복하게 됨.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정복민을 지배해야 했음.

군국주의가 컸음. 전사 위주.  
빈부격차를 방비하기 위해 화폐사용을 금지시키는 귀족정치 체재인 리쿠르고스 법을 만듬.

30세 이상의 남자만 민회에 가입가능했고, 입법권이 생겼다. 그리고 민회 결정시에는 소리를 질렀다.  
민회에서 5인의 감독관을 선출했다.

60세까지 전사로서 폴리스를 지켜야 했고, 그 이후는 장로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평균수명이 30~40이었던 중세에서는 거의 평생을 전사로 지내야했다.)

스파르타는 여성도 강력해야 강력한 전사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 >> 여성도 운동을 하는 문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 아테네의 성쇠**

오리엔트를 통일한 페르시아 vs 그리스 충돌.

소아시아에 진출한 이오니아인이 페르시아에 대항하며 충돌했고, 아테네가 이오이나를 후원.

1차 :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 침입, 기마병 위주였던 페르시아는 배타고가다가 폭풍 만나 실패.

2차 : 다리우스 1세가 아테네를 치기 위해 마라톤에 상륙했지만, >> 테네의 밀티아데스에게 패배함.

3차 : 크세르크세스왕이 재차 침입(대규모)했고, 아테네와 스파르트가 연합 >> 아테네의 데미스토클레스의 살라미스가 승리.

이것이 최초의 동서충돌이라고 함. /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페르시아의 전제정치에 승리했다는 의미 부여.

페르시아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고, 아테네가 1짱맡음.

**아테네의 황금시대!**

아테네가 너무 커지니까 독주를 막기 위해 육지 핵심인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 대입함.

델로스 동맹(아테네) vs 펠로폰네스 동맹(스파르타)

3번의 전쟁 끝에 아테네가 패배

펠로폰네스 동맹 내부에서도 갈등 일어남  
스파르타가 초기 패권 장악했지만 테베 중심으로 반 스파르타 전쟁이 일어나 테베가 패권 차지.

**폴리스의 몰락**

빈부갈등 / 애국심 사망 / 시민 징집병 등의 문제로 몰락.

마케도니아가 침입해 >> bc338년 케로네아 전투에서 그리스 전 지역 장악 및 정복하며 폴리스 시대 종막.

**그리스 문화**

인간중심적이다.   
시민들끼리 토론을 벌이고 정치하는 인간중심적 문화.

합리적 문화.

보통 시민들은 다신중심으로 하는 신 중심 문화였다. 근대 서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중심적인 합리적 문화인 것.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신 중심 문화.

**그리스 철학, 역사, 수학, 의학,**

인간이 모르는건 다 신 영역이야~ 가 당시 생각.  
하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는 자연철학이 시작됨. >> 근대과학의 시초를 잡아줌.  
또 많은 사람 죽어나가기도 했음.

소크라테스

유명한게 소크라테스의 너자신을 알라

플라톤(소크라테스 제자.)

근본을 아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 철학자가 왕. 철인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플라톤 제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 >> 고전철학 완성.   
중세 후기 서양문화 지대한 영향 미침.

역사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쓴 헤로도투스.

수학

피타고라스의 정리 만든 피타고라스

의학

신에 의해 병생긴다 했던 생각엎은   
환자관찰하던 히포크라테스 >> 객관적 의학체계 제작.

플라톤 아카데미

철인정치 실현하기위해 플라톤이 만듬.

연극

야외 공연장에서 연극을 통해 일반 시민 교육, 정치적 여론 형성.  
밖에서 사람 얼굴 멀리있으면 안보이니까 가면 이용해 표정을 표현.

문학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딧세이. 뭔진모르겠는데 중요한 작품 이름임.

아테네 학당

르네상스시대에 그려진 그리스 중심 철학에 있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려진 명그림.  
서로 향하는 바를 가르키고 있음. 플라톤(형이상학)은 위를, 아리스토텔레스(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는 아래를 가르키고 있음. 주변인문들도 다 관련인물.

건출

파르테논 신전과   
원반던지는 사람 같은 조각상.

고대 올림픽 경기

연습장도 있었고 마라톤 하던 그림도 있음.  
마라톤은 벌거벗고 뛰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만 참여했음.  
여자가 말 운전하는거로 참여하기도 했음 ㅎㅎ

**헬레니즘과 알렉산더 대왕**

케로네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 장악

페르시아 원정 주도하다 필립2세가 암살당함.

그걸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갔고,   
이소스 싸움에서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격파

아르벨라 싸움에서 페르시아 제국 멸망, 계속해 중앙아시아, 인도 서북부 침략 및 정복.

>>세계제국 구성. 그래서 알렉산더 –

전쟁대제국이 됨.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

동방의 전제체제를 선택해 >> 신적인 대군주로 군림

여러 민족들끼리 결혼가능하게 하는 통혼정책을 펼쳐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 포섭 및 동서문화 융합을 시켜 세계적인 성격의 헬레네즘 문화를 창조함.

그리고 코이네 그리스어를 공통어로 사용해 하나의 통일적 언어세계를 만듬.

근데 30살에 갑자기 뒤짐

**세계제국의 분열**

30살에 갑자기 뒤져서 애도 없고 후계자도 없어서 >> 마케도니아 / 이집트 / 시리아로 삼등분되어버림. 그래서 로마가 성장하고 이어서 로마로 편입됨.

**로제타 스톤**

프톨레 마이오스인가 뭐시긴가 하는 장군에 의해 그리스 문명이 이어짐 그 근거. (뭔가 족보같은거임.)